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86호 【주체 제 25229호】 주체 105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총공격전의 불길 세차게 지펴올리자

###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해나섰다

전력공업부에서 70일전투의 한달동안에 9 300여만kWh의 전력 증산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이 창조되는 속에 전력공업부도 로동계급도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실천으로 화답해나섰다.

전력공업부에서 9 300여 만kWh의 전력을 증산하는 전례 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화력발전부문의 농고보이도 70일전투가 개시되어 첫 달 동안에 비해 그다음 일주일간 전력생산량이 1.2배로 뛰어 올랐다.

부러 하루 전력생산계획수행에서 연이어 새 기록이 창조되기 시작하였는데 4월에는 108.2%, 2월 13일에는 113.6%, 21일에는 비약적으로 뛰어올라 124.8%의 수준에 이르렀다.

전력공업부에서 이복된 이 력적인 성과는 한몫이 그대로 불붙는 석탄이 되어서라도 나라의 생명선을 굳건히 지져가

로 치열한 싸움을 안고 전력공업부에서 모든 전력생산자들이 70일전투의 열아전군에 떨쳐나섰다.

단계를 확보 내뿜은 보이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여파까지 원인으로 작용을 멈출 때도 있었으나 전력생산에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있었다.

증산할수 있는 물과 기름을 얻어 놓았다. 중앙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는 가장적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70일전투가 시작된 지 6일만에 생산능력이 큰 발전속주조기생산공장을 증산화하고 시운전을 진행함으로써 부족되는 합금물을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전력공업부에서 이복된 이 력적인 성과는 한몫이 그대로 불붙는 석탄이 되어서라도 나라의 생명선을 굳건히 지져가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이 창조되는 속에 전력공업부도 로동계급도 당의 부름에 피끓는 실천으로 화답해나섰다.

중산투쟁으로 끊어 버리는 동평양 화력 발전소

###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현대화된 염색공정에서 최고생산수준 돌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김정숙평양방직공정에서 70일전투가 고조되면서 비약적인 생산성장을 안아오고있다. 방직, 전방, 직포종합직장을 비롯한 공장간의 모든 생산공정장에서 매일 70일전투목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는 가운데 염색공정장의 하루생산량이 지난 시기 최고생산수준을 훨씬 뛰어 넘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정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당의 후대사명, 인민사랑을 더 잘 받들어나가려는 총정신이 차넘치고있다. 자력자강을 필수의 보검으로 끌어쥐고 새로 제작설치한 원동직장의 순환비동축보이러가 전진의 동음을 높이 울릴 때 온 공장에 활력이 넘치고 특히 염색공정이 앞서나가게 된다.

오늘의 생산실적이 매일은 벌써 넘은 것이 되는 부단한 정신이 이루어졌다. 혁신의 기상은 과학기술의 힘에 의해 더 세차게 나해졌다. 염색직장장관제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이김수계에서 생산량을 1.3배로 높일수 있는 합리적 새로운 기술개조안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염색공정장의 모든 공정들이 비정상적으로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맞게 준비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염색공정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정의 종합관리를 그리고 정공정성과 방직공정관리부의 일군들도 너도나도 현장으로 달려와 준비작업을 도와나섰다.

이런 열정의 낮과 밤이 흐르는 속

### 회전로 한기당 생산실적 최고수준

보산제철소에서

보산제철소에서 70일전투의 불길도 높은 생산실적이 기록되고 있다. 현지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70일전투계획을 매일 평균 140톤 넘쳐 수행하고있다. 특히 지난 11일과 12일에 이어 연일 주체회전로 한기당 생산실적에서 최고수준이 기록되고있다. 이 성과는 철의 기치 강선에 더 많은 제강원료를 보내주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결실할 필요를 절감해 생산을 높이는 데 이바지되고있다.

이제 위인들과 최전로직장의 로동자들은 원동력합리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원동과 연로장설비를 철저히 단속하며 시간당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한편 교대제 마친 로동자들은 스스로가 또다시 전투에 전

입하고 뜻밖의 난관이 막아지면 주저없이 뛰어드는 단결한 공격전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선별공정을 지져낸 로동계급은 200톤도 넘지 않아야 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실수율을 줄일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파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단계적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일수 있는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실적을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생산의 마당공정인 염색이 잘 나가야 질 좋은 갖가지 편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더 빨리 거갈수 있다.

이런 열정의 낮과 밤이 흐르는 속

이제 위인들과 최전로직장의 로동자들은 원동력합리화를 새롭게 확립하고 원동과 연로장설비를 철저히 단속하며 시간당 생산성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한편 교대제 마친 로동자들은 스스로가 또다시 전투에 전

입하고 뜻밖의 난관이 막아지면 주저없이 뛰어드는 단결한 공격전으로 생산적양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져올리고있다. 선별공정을 지져낸 로동계급은 200톤도 넘지 않아야 하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으며 실수율을 줄일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파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단계적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 우리 식의 아크릴계질감생산성과 확대

순천화학연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을 기초한 자력갱생, 이것이 현대의 자력갱생입니다.》

순천화학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주체적인 아크릴계질감생산계획을 보다 완벽하게 푸는 사업에 힘을 쏟고 빠른 기간에 생산정상화의 통음이 높이 울리도록 하였다.

연합기업소기술자, 로동자들과 남동화합체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 설계가들은 우리 식의 아크릴계질감생산계획을 보완하기 일떠세우고 시험생산과정에 모든 공정을 원만히 개시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새로 꾸민 질감생산공정의 자동화수준은 대단히 높다. 집약적으로 정리있게 구성된 이 계통의 원료투입과 합성, 제품생산의 모든 공정은 종합자동제어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운영되고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질감은 질감은 지난 1월 평양시하철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하전동차의 도색재료로 사용되어 실적으로 검증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질감은 질감은 지난 1월 평양시하철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하전동차의 도색재료로 사용되어 실적으로 검증되었다.

다양한 금속과 목재, 전도체의 질감으로 널리 쓰이는 아크릴계질감의 확산은 우리의 미려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결사투쟁의 의지와 비단한 창조정신이 낳은 귀중한 열매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질감은 질감은 지난 1월 평양시하철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하전동차의 도색재료로 사용되어 실적으로 검증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질감은 질감은 지난 1월 평양시하철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하전동차의 도색재료로 사용되어 실적으로 검증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질감은 질감은 지난 1월 평양시하철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하전동차의 도색재료로 사용되어 실적으로 검증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질감은 질감은 지난 1월 평양시하철도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하전동차의 도색재료로 사용되어 실적으로 검증되었다.

화학공업성과 평안남도당위원회

직업안정 리용일동무를 비롯한 철

본사기자 지 원 힘

본사에서는 사정되어있던 전동기

본사에서는 사정되어있던 전동기

70일전투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 수령결사옹위의 총성 메아리친 흥기대전투

위대한 당의 명도마라 당 제 7차 대회를 향하여 폭풍노도적 진격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오늘의 70일전투는 당중앙의 권위를 바탕으로 용위하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수령결사옹위, 당정책옹위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인이 천군만마로 봉건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는 그 어떤 핵폭탄으로도, 그 무슨 특수작전으로도 절대로 허물수 없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감히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삼수작전》과 그 무슨 《세제결의》를 떠벌리며 무모한 진정광풍으로 미쳐 날뛰고있는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의 성새를 더 높이 쌓을 역적분단의 신념으로 가슴끓이고있다.

적동적인 이 시각 우리는 흥기하의 수렴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이 울려진 76년전 그날을 되짚어 돌아보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전의 나날 한몸이 그대로 생새, 팔레가 되어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신 백두산대장군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위대한 수령 결사옹위정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흥기대전투는 보천보전투, 간삼보전투, 동명현성전투, 무승현성전투와 같은 굵직한 전투들과 더불어 우리가 벌인 군사작전들 가운데서 잊을수 없는 작은 하나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혁명이 멀리 전진할수록 굳건히 세움되어야 할 가장 고귀한 투쟁전통은 바로 수령결사옹위이다.

우리 혁명은 항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수령결사옹위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게 되었다.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투쟁할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명세 다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으로 한생을 빛나게 사시었다.

지금도 항일전의 수많은 결전장들은 수령결사옹위로 명백히는 항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의적같은 신념과 의지가 어떻게 파시되었는가를 력사의 기록으로 숭엄히 전해주고있다.

주제 29(1940)년 3월 25일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멀리 이동하는것처럼 눈우에 발자국을 내면서 대마곡구하의 열썰짜기를 따라 내려가던 천남파는 멀리 발자국을 지우면서 은밀히 불짜기의 좌우측방전을 하고 강성부대로 다시 올라가 불짜기의 유리한 지점에 배치하였다.

이날 불짜기 오펜에는 3개의 불우리에는 경위중대와 기관총대를 배치하고 전총부대의 반부대에 7개대와 8개대를 배치하였다.

오후 6시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에견하신 그대로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전남에 번 발자국을 따라 백두산으로 기어올라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기본대오가 백두산에 완전히 들어서자 사격명령을 내리시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산언덕과 기슭에서 맹렬한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전투장은 적들의 시체로 덮여들었다. 살아남은 놈들이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할 때 돌격명령을 알리는 신호팔소리가 울려들었다. 전대오는 비호같이 적들에게로 육박하였다.

그런데 불짜기로 넘어간지 얼마 안되어 지휘처에서 별다른 불짜기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대령이 달려가 보니 주위의 울리한 지형지물에 의지하여 조준사적으로 적을 소멸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라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의 약진적인 《특수부대》이며 또한 놈들이 지형지물을 리용하여 완강하게 저항하는 조건에서 동격을 계속한다면 적으나마 손실을 입게 되리라는것을 제때에 보좌하시고 돌격을 중지시키시었다.

이리하여 전대부대에서 발악하는 놈들을 한놈씩 모조리 쓸어내리는 지극적인 벌이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명중사격에 그제저도 호인장담하던 미대놈을 비롯한 적장교놈들과 중령놈들이 한이 없어졌다.

항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전투에서 사령부를 보위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우시었다.

어느 전투와 같이 잠시도 경장을 늦추지 않고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곳을 살피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만 눈앞에서 앉을수 없었다.

백두산에서 간신히 벗어난 한무리의 적들이 예상밖에도 사령부가 자리잡은 봉선에 나타났던것이다.

이것은 사령부에 막대한 뜻밖의 위험이었다.

그 순간 한몸이 그대로 생새, 팔레가 되어서 사령부로 쏘리는 적들을 쓸어버릴 비상한 결심을 다지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든 힘을 다하시어 전대나루와 크릴바위를 뛰어넘었다.

시며 놈들이 나타났으므로 달려가시었다. 그러시고는 적들을 자신에게로 돌격하기 위하여 놈들을 좌제끼시면서 사령부와 다른 방향의 봉선을 타고 달려가시었다.

적들을 자신에게로 유도하시려는 김정숙동지의 의도를 간파한 녀대원들도 놈들을 향해 사격하면서 뒤따라 달려들었다.

적들이 쏘는 총알이 이르러는 소리를 내며 귀를 스쳐지나갔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적들을 사령부로부터 먼곳으로 끌고가며 죽여대시었다.

이제 고구원 대원들도 맹렬의 총탄을 맞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와 비교 나 멀리 떨어진 지점에 이르시자 바위와 아홉도나루에 의지하여 달려드는 놈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으시어 마지막 한놈까지 소멸하시었다.

항일의 내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뒤봉선에서 울리는 심장소리 같은 것우에 듣고 급히 달려들 경위중대원들에게 미소이런 눈길을 보내시며 《안심할 하세요. 사령부뒤봉선에서는 무사하시나이다.》라고 기쁨에 겨워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말씀을 들으며 크나큰 걱정을 철회하였던 대원들은 그이의 배낭우에 얹힌 양재기에서 두개의 탄알자국을 발견하였다.

순간 대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등에 지신 양재기를 만안아 돌고나갔으니 김정숙동지께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셨는지! 자신이 겪으신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락하시다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 김정숙동지.

대원들은 그이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감할수 없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언제나 자신의 첫번째가는 혁명임무로 여기신 김정숙동지이시였기에 수령결사옹위의 전구미대에서 그처럼 영웅적 위훈을 세우실수 있었던것 아니랴.

훈장이 우락부락 날아오는 속에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안전만을 생각하시며 백발백중의 사격술로 한무리놈들을 쓸어내리신 백두산대장군 김정숙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온정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경준 찍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베닌공화국 대통령 당선자 **빠프리스 뽀탈롱각하**

나는 당신이 베닌공화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진보와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3월 24일 평양

아래에 그리스공화국 대통령 **쁘로코페스 파블로풀로스각하**

나는 그리스공화국 국경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3월 25일 평양

다카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대통령 **엔디. 아브둘 하미드각하**

나는 방글라데시 독립 45주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3월 25일 평양

## 로작 학습을 실속있게

역사관료 초급당위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관료들중에서 경제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지》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초급당위위원회에서는 연구 발표모임과 명세해설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로작학습을 심화시

키는 한편 일꾼들이 만부들속에 들어가 해설사업을 할신하에 버려나가지도록 하고 있다.

일마진 2경 막장에서 진행한 명세해설모임에서 해설자는 선군이 있어 우리 조국이 수조만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하면서 경제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 총정의를 발표하시어 그 열렬히 호소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신 1돛기념 체육부 연구논문대회 진행

로동통신원 언 전 행

본사기자 전 광 남

본사기자 김 성 남

본사기자 차 수







# 기적과 위훈창조로 수놓아가는 총정의 70일전투철야진군의 화폭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



- 황해제철연합기업소에서 -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



- 백두산영웅정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



- 홍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



- 김동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에서 -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



- 홍주정년3호발전소건설장에서 -



- 유경건설관리국에서 -



- 대동강은하피복공장에서 -



- 2.8작동정년단판에서 -

현시보도판

## 총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공연무대

### 왕재산예술단 강계에서 첫 공연 진행

혁신적인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파감히 벌어지고있는 속에 왕재산예술단이 24일 강계에서 지방순회공연의 첫막을 열었다. 공연장소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중포로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완성에 한시완전이 펼쳐나 날에 남이다는 부신 기적창조의 위훈을 세외가고있는 수많은 군중들로 차고넘치었다. 도인의 혁신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들, 일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었다. 개시음악 《가리라 백두산으로》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중창 《우리의 집정은동지》, 남성2중창 《인정의 세계》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노력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동적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획적위훈을 창조

하며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우리 인민의 총정의 마음을 감명 깊게 펼쳐놓았다. 여성중창과 방랑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공적전이다》, 《공적전이다》, 《공적전이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노력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동적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획적위훈을 창조

하며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우리 인민의 총정의 마음을 감명 깊게 펼쳐놓았다. 여성중창과 방랑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공적전이다》, 《공적전이다》, 《공적전이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노력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동적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획적위훈을 창조

하며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우리 인민의 총정의 마음을 감명 깊게 펼쳐놓았다. 여성중창과 방랑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공적전이다》, 《공적전이다》, 《공적전이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헌신적노력을 이어가시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활짝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따라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동적전에서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획적위훈을 창조



【조선중앙통신】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한 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의 마두산혁명전적지 답사가 24일 진행되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안주지구 비밀근거지로 꾸려져 우리 나라 시부인대의 지역적평도거점, 중요한 군사작전기지의로서의 사명을 수행한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우리 인민의 불멸의 투쟁정신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대업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장례를 진감하며 높이 올리는

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 마두산혁명전적지 답사 자주적혁명정신이 어려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두산과 더불어 혁명의 만년제로 빛내어주시는 혁명의 땅에 들어선 답사자들의 가슴은 끝없는 격정으로 세차게 설렘었다. 먼저 구로문화보존교양실을 찾은 그들은 마두산, 상산, 전산, 폭력산영등들로 꾸려진 안주지구 비밀근거지가 조국해방의 최후공적작전시기 혁명의 사명부가 자리잡게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있었다는 장사의 해설을 주의깊게 들었다.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전경사 관유어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지냈던 숭고한 사상성

신적용모를 더욱 뜨겁게 새겨안았다. 답사자들은 주제의 활력을 끝없이 이어주며 우리 당의 혁명전투의 진리성과 영원불멸할 생명력이 맥맥히 흐르는 전적지의 구조물건들과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이 피로하던 쉼골터 등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농군맹일군들과 농군맹원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의 투철한 수령님사용의정신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뜻을 올린 농군맹일군들이 기어이 홍양론을 불러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 열의로 가슴 불태웠다.

이러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고 시성구역인민병원 위생선진대공원을 관람하였다. 한편 이날 세계결핵의 날과 관련한 집중위생선진사업이 평양시와 각 도에서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세계결핵의 날에 즈음하여 주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이 23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비수용외무상, 박근광 등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러 너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싸이에드 짜드드 하이더 힘스 대리대사를 비롯한 파키스탄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싸이에드 짜드드 하이더 힘스대리대사가 연설했다. 세계결핵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보건부, 관계부문의 일꾼들과 주조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대표를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세계결핵의 날에 즈음한 행사 진행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올해에 내놓은 《결핵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결하자!》라는 주제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결핵을

세계결핵의 날에 즈음한 연회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한 연회 그는 두 나라가 지난 기간 원선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지역 및 국제문제에서 견해를 같이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고 파키스탄은 외세의 영향과 간섭이 없는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언제나 지지하였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

세계결핵의 날에 즈음한 연회 다고 하면서 그는 최고명도자인 김정은원수이하의 영도만이 조선인민이 맑은 미래를 안아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비수용외무상이 연설했다. 그는 뜻깊은 민족적명절을 맞아 파키스탄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독립후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사







